신제품(NEP) 인증제도 시행 안내

■ 정부는 그간 5개 부처에서 운영해 온 7개 신기술인증(산자 : NT, EM, EEC, 과기 : KT, 건교 : CT, 환경 : ET, 정통 : IT) 제도를 2006. 1. 1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2개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6. 1. 1일부터 기존 NT, EM, EEC 인증제도를 신제품(NEP)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제도명 :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인증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
- 신청서접수 : 연중 수시
- 처리기간 : 3개월 이내
-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
- NT, EM 등 기존의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NEP인증으로 연계하여 잔존유효기간을 인정
- 신청 수수료 : 무료
- 신청서 양식 :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에 포함되어 있사오니 http://www.ats.go.kr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기술표준원 민원실 / (우 427-716)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기존 EMNT 홈페이지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개편하고자 서비스를 중단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재교부 안내 : 2006년 1월 1일 현재 NT, EM, EEC인증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신규 NEP인증서로 재교부 하오니 구 인증서(NT, EM, EEC)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납처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단, NT인증은 NET 또는 NEP 중 어느 인증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하여는 인증업체와 협의한바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인증서 반납 및 재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02-509-7285]

기표원 "전력IT 표준화 전방위 추진"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선 '전력IT'에 대한 표준화가 전방위로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력IT 국제 표준 주도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최근 전력IT 표준화 6개년 계획을 마련해 연구개발(R&D)과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또, 관련 표준 전문가 양성과 전력IT 연구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조기 상용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2. 28(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IT 표준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앞으로 전력IT 강국 달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표준화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전력IT 추진위원회는 기표원 중심으로 구성된 '전력IT 표준화팀'을 통해 국제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향후 6년간 3단계로 구분해 표준화를 추진, ①단체표준 80종 ②국가표준 100종 개발 ③국제표준 70건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전력 IT 연구개발과 연계한 단계별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고 관련 국내외 표준과 기술조사 · 분석 · 개념 정립에 나선다.

또, 연구개발 수요조사와 전력IT 관련 국외기술 표준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고 단계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 작업 그룹을 구성해 표준화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국내외 전문가 인력 현황도 동시에 조사한다.

이밖에 해외 전력IT 표준화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국제 표준 협력 방안 등을 기획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화 정책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국제 전력IT 표준화 단체 · 포럼 · 컨소시엄 등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 대상 국가와의 선행적 표준협력도 진행해 중국 · 동남아 · 중동 등 국내 기업들이 진출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이응로 연구사는 "전력IT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브릭스(BRICs)나 동남아, 중동 등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며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 국가와의 선행적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02-509-7114]

산자부, 올해 신 · 재생에너지 부문에 총 4,095억원 지원

– 기표원, 형광등 · 누전차단기 · 선풍기 등 12품목 대상 –

전기제품의 시중유통을 근절시키고자 이달부터 시판품조사를 강화하여 불량 KS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조사에는 수요가 많은 품목중에서 형광등 · 누전차단기 · 선풍기 등 사고 다발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시판품조사에서 불량률이 높았던 품목도 포함된다.

※ 조사 대상 품목 (12품목 113업체)

-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품목 (3품목, 39업체)
  - 누전차단기, 멀티탭, 콘센트
-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관리대상 품목 (1품목, 5업체)
- 선풍기
- '05년 사후관리 결과 중결함으로 처분한 품목 (8품목, 59업체)
  - 형광램프(U자형),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등기구,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형광등용전자식안정기, 배선용차단기, 주택용분전반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KS전기제품은 대부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서 선풍기의 경우, 품질이 조악한 제품이 많아 쉽게 파손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편이다.

또한, 형광등은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로 화재 위험이 높으며, 불량 누전 차단기는 장마등 우천시 전기 누설을 감지하지 못해 감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에서는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수시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시 시장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세한 중소업체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과 행정지도 등을 하도록 하여 불량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02-509-7297)

일반주택 태양광, 전년보다 120만원 싸게 설치한다.

- 일반주택태양광 전년보다 137%증가한 2,156가구 보급 -
- 태양광을 희망하는 자가 직접 전문기업을 선택 설치 -

■ 산업자원부(정세균 장관)는 '06. 3. 20.(월) 지난해(907가구)보다 137% 증가된 2,156가구(3kW기준) 규모의 일반주택용 태양광을 보급하기로 확정하고, 가구당 평균 설치단가 2,820만원을 기준으로 설치비의 70%인 1,974만원을 국가가 지원(총 지원금액 426억원)한다고 밝힘

■ 태양광 설치희망자는 평균 설치단가의 30% 수준인 846만원만 부담하면 종전과 달리 지원신청 및 사업평가 절차 없이 정부가 심사 · 선정하여 공시한 전문기업을 직접선택하여 태양광을 설치한 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 되었음

※ 종전 : 신청(희망자 + 설치기업) → 사업평가 및 확정 → 설치
※ 변경 : 제안(전문기업) → 시공능력 및 설치단가 심사 → 설치

■ 시공능력심사와 설치단가 경쟁을 통해 전문기업을 선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평균설치단가가 지난해(3kW기준 2,940만원)보다 120만원이 인하됨

- 이에 따라 태양광 설치희망자는 지난해(882만원)보다 36만원이 인하된 846만원만 부담하고, 정부도 절감금액을 활용하여 당초계획(2,030호) 보다 126호를 추가 보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소비자 중심의 태양광 보급제도의 변경으로 태양광 설치희망자는 정부에 직접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이 '06. 3. 27.부터 서비스가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전문기업을 직접 선택만 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문의: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02-2110-5403〕